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1. 7. 18 ~ 2021. 8. 7 제251호

포토에세이



▲ 가나의 한 마을 시장 공터에 정차한 버스. 제공: WMM

의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늦은 오후, 버스 한 대가 가나 마을의 시장 한가운데에 정차했다. 버스 옆에는 시원한 음료수들과 음식들을 대야에 가득 담아 머리에 얹은 사람들이 보인다.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것들이다. 버스를 이리저리 쳐다보지만 사겠다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장사꾼들은 대부분 어린 소녀, 소년들이다. 어찌다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장

사를 하고 있을까? 각자의 사연은 다 모르지만, 이들 모두는 한 가지 간절히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하루 장사가 잘 되는 것!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기다린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 삶이 행복할 텐데...' 그러나 나를 지으신 주님만이 내게 무엇이 있어야 가장 행복한지 아신다. 세상에서 방

황하며 이것저것을 구해도 만족할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어 주셨다. 죄인을 구원한 그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져가기를...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편 40:9) [GNNEWS]

부산시립합창단의 시편 공연이 종교편향인가?

지적인 불교계는 오히려 정교분리 위반

지난 6월 부산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에서 기독교 찬양 내용의 공연을 펼쳤다는 이유로 지역 불교계가 종교편향 공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부산시가 종교편향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립합창단은 182회 정기연주회에서 '위로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레너드 번스타인의 히브리어 합창곡 '치체스터 시편(Chichester Psalm)', 바빌론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의 복수와 벨사살왕의 비극적 종말을 다룬 윌리엄 월튼의 '벨사살의 향연(Belshazzar's Feast)' 등을 연주했다.
이에 조계종 주지들은 국·시립합창단이 종교편향 공연을 했으며 전국 지자체에 종교편향 대처 공문을

하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 송삼중 문화체육국장 등 시 관계자들은 이달 1일 범어사를 방문해 종교편향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금지되는 것은 종교편향이 아니라 정교분리로, 불교계의 이 같은 지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이다. 문제는 종교편향을 지적하는 불교계가 오히려 세금과 정책 등에서 종교편향적 혜택을 받고 있어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템플스테이 예산이다. 정부는 2004년, 1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0억 원, 2009년에는 185억 원, 2012년에는 200억 원, 2016년에는 248억 원으로, 13년간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지원한 금액은 총

1924억 원에 이른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템플스테이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고,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변명이지만, 그 안에는 예불, 공양, 참선 등 불교의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 주장의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미국 공화당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캐나다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경찰이 목회자를 도로에서 체포한 것을 들어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특별감시 국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목회자들도 종교전쟁과 독립전쟁을 수행한 프로테스탄트(저항자)의 후예답게 지금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와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안목을 넓혀야 할 때다. [GN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35)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잔인한 분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희불을 만들어서, 그 속에 던져 넣어 영원히 고통받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지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대응은 공평하고 정대하십니다. 사람은 한 대를 맞으면 열 대를 되돌려줘도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공할만한 것이면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지옥은 관념의 세계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끊임없이 널름거리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단 한 번의 기회를 얻어 부탁합니다. 생전에 자신이 멀리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데, 그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서 그 한 방울만이라도 자신의 혀를 적혀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옥이 영원 가운데서 단 한 번,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불에 타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침 넘길 사이도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의 고통은 끝난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지옥은 절대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강단에서 치유,

회복, 성공, 능력... 이런 이야기 말고 지옥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들어보았습니까? 혹시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우리 주님은 천

국에 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GN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의 소리 316 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정난전화는심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美장로교(PCA), 동성애자 안수 금지 담은 헌의안 통과... '성직 참여' 금지



▲ 미국 장로교회(PCA) 총회 현장. 출처: byfaithonline.com 캡처

미국 장로교회(PCA)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안수를 금지해 이들이 성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헌의안 23' 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미국 기독교언론 아킬라 리포트가 최근 전했다.

최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48회 총회에서 PCA는 찬성 1400표, 반대 400표로 "미 장로교 소속 임원들은 행실이 바르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이에 모순되는 정체성을 주장하는 이들(게이 기독교인, 동성애

성향의 기독교인, 동성애 기독교인)이거나, 타락한 욕망(동성애 유혹에 한정되지 않은)의 죄성을 부인하거나 점진적인 성화의 실재와 소망을 부인하거나, 유혹이나 죄적 성향이나 행동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데 실패할 경우, 성직자로 임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헌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내년 2차 총회 투표 전 지역 교회에서 표결되고, 그 후 PCA의 교회 헌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아니라 교육 장로직 시험과 관련한 '헌의안 37'도 확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그 후보자의 "관계적 죄, 성적 부도덕(동성애, 음행, 음란물), 중독, 학대 행위 및 재정관리 부실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반성"을 요구했다. 또 "후보자는 죄를 극복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에 따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를 의지하면서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 약함은 남아 있겠지만, 이는 평판이나 그의 남은 죄(동성애적 욕망)의 자기 고백에 의해 알려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로 알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CA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 사조로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한 PCUSA(구 PCUS, 미국남장로교)를 떠나 1973년에 독립한 교단이다. 현재 미국 와싱턴중앙장로교회(유용렬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리더머장로교회(팀 켈러 목사) 등이 가입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절대 권위 등을 따르는 보수적인 신학관점을 갖고 있으며, 교단 신학교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신학교를 갖고 있다. [GPNEWS]

우간다,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 가족에게 폭행·독살 위협

우간다 동부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 하지트 하비바 나무와야(Hajat Habiiba Namuwaya)가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음독(飲毒)하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3명의 자녀를 둔 나무와야는 지난 2월 24일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고 유방암이 치유된 후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녀는 "어머니는 가족이 나를 죽일 계획이라고 경고했다."며 "목사님에게 나의 두려움을 나누었고, 목사님은 그의 가족과 함께 있도록 나를 초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왓츠앱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녀가 목사의 집에 머무른다는 메시지가 아버지에게 전달됐고, 아버지는 다른 친척들을 동원해 그녀를 추적했다. 그러던 지난 6월 20일 그녀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목사의 자택에 쳐들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회복중이며 지속적인 복통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무와야는 "그는 문득한 물건으로 나를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등, 가슴, 다리에 타박상을 입

혔고, 독을 마시도록 강요했다.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조금은 삼켰다."라며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많은 꾸란 구절을 낭송했다."고 말했다.

나무와야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은신처를 찾았으며 친척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자신이나 교회에 대해 허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간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일부 동부 및 중부 지역에는 무슬림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퓨-템플턴 글로벌 종교 미래

프로젝트에 따르면 우간다 인구 중 약 11.5%가 이슬람교도이며, 이들은 주로 수니파로, 개종자 살인과 공격이 드물지 않다.

이에 순교자의소리는 "급진적인 이슬람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대다수 이슬람 국경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 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복음주의 교회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대응했다.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이 된 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지도자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했다. [GPNEWS]



▲ 우간다의 한 기독교인 여성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출처: guame.com.br 캡처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본격화 이후 탈레반 급팽창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영국 등 국제동맹군이 철수를 본격화하면서 아프간의 곳곳이 탈레반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아프간 톨로뉴스에 따르면 탈레반은 현재 전체 행정구역 400여 개 중 100개 이상을 장악했다.

전쟁의 황폐함과 불안 가운데 놓인 아프간 주민들을 올려드립니다.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의 보호자 되어 주시고, 보복하는 자들의 손을 거둬주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韓 성인지감수성 정책에 35조... 국방예산과 맞먹어

우리나라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정책에 국방예산과 맞먹는 35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성별 해체'를 목표로 사회갈등을 만들어내는 페미니즘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최근 뉴데일리가 전했다.

'억압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자.'는 말로 창조주의 주권을 반역하고, 성별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으로 자유를 얻는다는 속임을 벗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모양과 역할을 다르게 정해주신 차이를 겸손히 인정하는 이 나라가 되길 간구합니다.

인도 기독교, 힌두 민족주의의 광범위한 박해로 고통

오픈도어선교회와 인도 힌두 민족주의에 따른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과파적 거짓말'은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려 힌두교인들을 감염시키려 했다고 허위 주장하는 캠페인을 상세히 기술했다.

코로나19와 함께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인도의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의 계시를 통해 소망을 주신 것처럼, 환난 가운데 굳센 믿음과 그날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1년 7월 12일 ~ 7월 31일

7월 12일 ~ 7월 17일 7.12(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7.12~16(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 010-2735-4869, 7.13~16(11~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 010-4510-1070, 7.13~16(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 010-4715-3727, 7.15(0~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 010-3697-0641, 7.16(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 010-4567-8775, 7.16~17(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 010-3106-3632, 그 외 6교회 진행중.

7월 19일 ~ 7월 24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 010-4734-8567, 7.19~24(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 010-5337-2771, 7.20(10시)~21(17시) ▶강원 고성 / 아야진교회(홍**) 010-3191-8622, 7.20,22~24(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7.23(13~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 010-7129-7224, 7.23~24(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 010-4661-4039, 7.23(10시)~24(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 010-4013-5346, 그 외 5교회 진행중.

7월 26일 ~ 7월 3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 010-7364-9982, 7.26~30(10~16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 010-2664-6936, 7.26~31(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 010-4501-0059, 7.27(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 010-5417-9933, 7.27~30(11~17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 010-4510-1070, 7.27,29~31(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 010-5186-0091,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 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국가보안법 논란... “北 체제 인정하면 신앙의 자유 못 누리”

한국대학생교회(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는 2008년 한 집회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폐지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제시대를 거쳐 6.25전쟁을 통해 공산주의의 실상을 온몸으로 체험한 김 목사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으로 확신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국보법 논란의 배경과 실체를 살펴본다. <편집자>

먼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국보법의 존재가 불편한 사람은 누구일까? 현재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집단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하다.

먼저 정치권이다. 지난달 8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지며 국보법 폐지 여론을 고조시켰다. 이에 앞서 5월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을 발의,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이들의 국보법 폐지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국보법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폐기돼야 할 친일잔재다. ② 국보법은 정권 유지를 위해 표현·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다. ③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은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민족 내부의 단결과 발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국보법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국보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보법, 여순반란 사건 이후 공산세력 제거 위해 등장

국보법을 처음 제정한 사람은 해방 직후에 등장한 지역구 옹진군의 김인식 의원(1921~2008)이다. 당시 20대 후반의 김 의원은 1948년 9월 20일 ‘대한민국 내란행위특별처벌법’ 제정을 발의했다. 다음 달 10월 19일 실제 내란에 해당하는 전남 여수·순천에서 반란(여순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단순한 국군 내부의 반란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봉기이며 당시 지방 민중이 주동이 되어 무장을 하고 인민군을 조직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남한에서 암약하던 공산주의자들은 국회의원을 포함 8만 명의 처형명부를 작성, 실제로 우익인사, 지방유지, 경찰관 등을

처형했다. 공산주의는 이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20세기 공산주의가 출현한 이후, 이념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다.

이런 공산당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국보법이다. 그러나 지금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이 같은 역사 서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이들은 몇 년 전 반공적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교과서를 적극 반대하며, 당시 고등학교에서 검인정교과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책과 사상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 손쉽게 ‘해체돼야 할 기독교 세력’으로 여기게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횡행해 왔다. 물론 과거 기독교를 누린 사람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강력한 반공 정책에 의해 생명을 잃은 선의의 피해자도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2차 대전과 6.25전쟁을 거치고 신생 독립국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생전 처음 겪는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모두 시대의 아들이다. 오늘의 잣대로 지나간 시절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 수십 년 전 남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에 비해 절대 빈곤과 가난의 고통을 더 쓰라리게 겪어야 했다. 일제시대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북한지역에 세워졌으며, 산업기반 시설이 거의 없는 남한 사회를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은 해방 이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섰을 것이다.

잔혹하고 부정부패한 북한 권력과 정상적인 대화 어려움

둘째, 정말로 국보법 때문에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로 남아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본다. 국보법만 사라지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세상이 펼쳐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북한을 싸고도는 많은 정치인과 사람들은 지금 북녘에서 펼쳐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정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문제 삼는 것처럼 북한사회를 동일한 잣대로 재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유동열의 안보전문 캡처

지금부터 1년여 전인 2020년 6월, 북한은 한국이 수백억 원을 들여 남북한 긴장완화와 대화협력을 위해 판문점 지대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차비하게 폭파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이 ‘김정은, 판문점 선언을 폭파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멸칭한 건물을 폭파하는 집단은 온갖 인명상과 테러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정도가 있다. ISIS는 2015년 무렵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고대 파르티아 제국의 도시 하트라, 이라크 모술 박물관의 석상과 조각품, 티크리트의 교회와 성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천 년의 세계문화 유산을 파괴하고 약탈했다. 이처럼 켈쳐 제노사이드(문화대학살)를 자행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ISIS와 협력 상대가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입해 만든 건물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는 북한 정권과 차이가 없다.

또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온갖 말로 헐어 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대화상대인 한국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마구 퍼부어대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북한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탈북민 출신 언론인 주성하 기사는 최근 동아일보에 “칼춤 추는 김정은, 예고된 피바람이 분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이 돈까지 벌여오지 못하고 식구들의 원망이 높아지자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로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했다. 주 기사는 장성택 숙청 때 그랬던 것처럼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상건 과학교육부장을 회의 도중 참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끌어내 숙청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월에도 김두일 노동당 경제부장과 박태성 노동당 선전비서가 사라지고, 이 중 한 명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을 잘 못한다고, 실적이 낮다고, 회의 중 졸았

다고 고위 책임자를 끌어내고 처형하는 북한 집단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북한이 이같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북단체의 인사는 언론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폭파된 것이 아니다. 판문점 선언의 시대정신은 폭파되어서 안되기 때문’이라는 정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친북, 종북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게도 북한의 이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정당한 자구노력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환경을 만든 미국은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악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위조된 기록 ‘김일성 회고록’ 역사 바로 세우기 필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좋은 지적이다. 잘못된 기록과 전통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번 시행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정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면 된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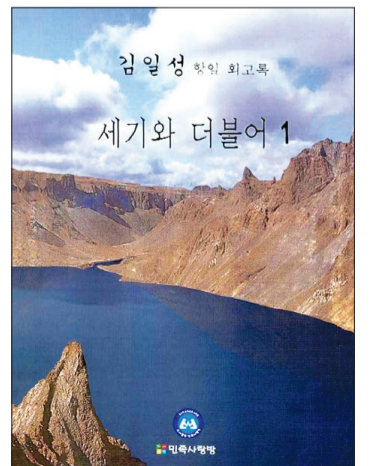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사실과 다른 김일성의 연대기를 통해 신화화한 허위 날조 기록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한의 김씨 가문 우상화작업과 함께 이뤄진 이 회고록이 국내에 그대로 시판될 경우, 현행 국보법의 핵심인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 일부 언론은 이것이 무고한 시민들을 보안 사범으로 몰아가는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지만, 현재의 김일성 회고록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왜곡된 역사를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 역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활동한 김일성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일본군에 위협적인 활동을 한 여러 김일성 장군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초대 수반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01세인 김형석 교수는 지난해 조선일보 ‘백선엽

과 김형석, 문무 100년의 대화’ 인터뷰를 통해 “창덕소학교 선배인 김성주가 만주에서 돌아와 김일성 장군으로 소련군 장성에 의해 소개되자, 군중이 웃으며 말도 안 된다고 수군거리던 장면이 선명하다.”고 회고했다.

1912년생인 김성주는 아버지 김형석과 어머니 강반석 사이에서 출생, 부모와 함께 유랑생활을 하며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공산주의 폭력단체에 가담,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행사했다. 1930년 무렵 김성주는 김일성(金一星)이라는 별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성주는 이후 중국공산당이 되어 중국공산당을 위해 항일투쟁에 참여했다. 1940년 소련군 극동군사령부 산하의 경찰부대 88여단에 소속된 김성주는 이때 김일성(金日成)이란 별명을 사용했다. 해방 후 김성주는 소련군의 북한지역 점령이 끝난 1945년 9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소련군과 함께 군함을 타고 88여단의 다른 한국인 대원들과 함께 원산항으로 귀국했다. 소련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결성하고, 김일성이 된 김성주를 비서(부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리고 10월 14일, 소련군 환영 평양시민 군중대회에서 겨우 33세의 김성주를 김일성(金日成)장군으로 소개한 이후, 김성주는 완전히 김일성 장군으로 공식화됐다. 이처럼 북한의 김일성은 조선독립을 위해 백두산을 근거지로 항일무장 군사조직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지휘하며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한 김일성 장군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시판 논란을 벌인 김일성 회고록은 출판사측에 의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는 허구의 사실을 진실인양 담고 있다. 이런 책자를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시판 <6면에 계속>



▲ 최근 논란을 일으킨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책표지

기획 | 창조 이야기 (58)

인간의 망막 위치, 자외선 차단에 적합... 창조의 신비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웨스트 플로리다의 한 대학에서 강연했을 때의 일이다. 한 생물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호빈드씨, 당신은 우리가 교과서를 찢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가 교과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2+2=5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다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아이들에게 틀린 답을 지우고 맞는 답을 쓰라고 하겠다.” “선생님은 생물학을 가르치시는데, 만일 당신이 배아에 야가미 구멍이 있고 뱀에게 흔적 기관인 골반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그 페이지들을 찢

어내라고 하겠는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지우고 옆에 그것이 틀렸다고 쓰라고 하지도, 표지에 경고문을 붙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수학책은 고치겠지만 생물학책은 안 고치겠는가?” 이런 사람은 위선자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진화는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될 수도 없다. 유일한 다른 선택이 특별한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들은 창조를 믿기가 싫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거짓말을 믿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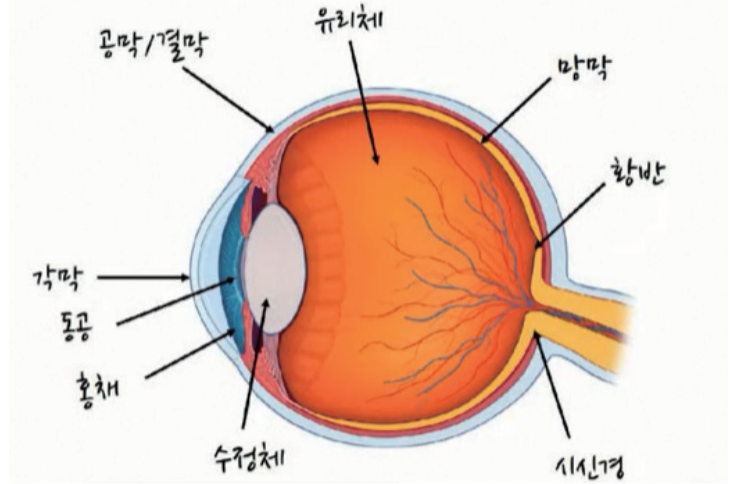
눈이 허접한 설계? “NO” 1제곱인치에 세포 1억 3700만 개

시편 94편 9절에는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라고 말

씀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안구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 우리 눈의 뒤쪽에 1제곱인치 당 1억 3700만 개의 빛에 민감한 세포들이 있다. 이것은 망막이라고 불리는데, 모든 세포들이 뇌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1제곱인치 안에 1억 3700만 개의 전기 회로를 집어 넣겠는가?

한 무신론자가 “눈은 진화의 한 예다. 아주 허접하게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 앞에 있는 혈관을 지나간다. 또 눈은 거꾸로 연결되어 있다. 문어가 훨씬 더 나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혈관은 망막 뒤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공기 중에 산다. 공기에는 자외선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혈관이 망막 앞에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이 자외선을 향한 우리의 몸의 마지막 방어체계인 것이다. 문어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에 산다. 그러니까 그들은 망막 앞



▲ 눈의 구조와 망막의 위치. 출처: 유튜브 채널 잠깐만 안과상식 - 3분 안과 캡처

에 혈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공기 중에 살도록 설계되었고, 문어는 물에 살도록 설계되었다. 만약 문어와 눈을 바꾸고 싶다면, 수일 내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으므로 진화된 게 틀림없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화론을 위한 바보 같은 주장이다. 아마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이해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인간의 몸에 대한 사람의 이해력이, 5살짜리 아이를 차의 후드 밑에 넣어놓고 “야야, 필요 없는 것은 다 빼버려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다 빼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과학은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룬다. 그러나 진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찰할 수 없다. 안구와 같이 설계된 것이 있으려면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린 사람이 있다는 증거이며, 건물은 건축자가 있었다는 증거다. 즉, 창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증거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GPNEWS]



선교 통신

스리랑카, 코로나 확산에 홍수 덮쳐... 식량 패키지 제공



▲ 식량 패키지를 전달받은 스리랑카 주민들. 제공: 윤OO 선교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스리랑카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다. 4월 초 와우니아 지역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참석하신 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기도를 했다.

그러나 4월 중순경 이들간의 설 명절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다. 새 옷을 사고 친척 집에 다니는 이곳의 설 명절을 지나며 확진자가 1700명 정도 발생했다. 스리랑카 인구가 20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2000명 확진자는 인구 5000만 명인 한국에서 하루에 5000명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통행금지로 길에 사람들이 없었다. 수도인 콜롬보 쪽으로만 백신이 지급되고 있다. 서민들에게

도 백신이 공급되어 코로나가 어서 잠식되기를 기도한다.

5월로 접어들면서 코로나에 이어 홍수나 댕기열로 현재 총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홍수가 나서 10명이 사망하고, 22만 명이 피해를 보았다. 홍수 이후에는 댕기 모기가 기승을 부려 댕기열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다. 또한 5월 20일에는 콜롬보 앞바다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컨테이너선(MV X-프레스 펄호)이 폭발한 후 선상 화재가 13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후에는 침몰된 컨테이너 잔해와 플라스틱 알갱이가 전 해역을 덮쳤다. 기도했다. “어떻게 이 땅을 섬길까요? 지혜를 주세요.”

지난 6월 초, 과거의 내전으로 미망인이 많은 와우니아 지역의 루비 사모님이 그곳에 직업을 잃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받고 한국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제목을 나눴다. 10명의 동역자가 지원금을 보내왔다. 통행금지 때문에 지역 경계를 넘을 수 없어서 구제할 명단과 영수증을 받고 재정을 보내드렸다. 53가정을 섬길 수 있었다. 그 가정들이 식량 패키지를 받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다.

또 형편이 어려운 독립교단의 교회들이 생각났다. 현지 주요교단 소속 교회들은 교단에서 사례비가 나오지만, 독립교단 목회자들은 통행금지, 집합금지로 생계유지조차 어렵다. 느헤미야 기도를 함께 했던 교회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다. 목회자들에게는 1만 루피(한화 6만 원 정도), 성도 1가정엔 1400루피(한화 8000원 정도) 상당의 식량 패키지를 보냈다. 13명의 목회자와 224개 가정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 식량 패키지 하나는 4인 가정이 2주를 먹을 수 있다. 곧 2차 식량 패키지를 보내기로 했다. 어려운 때에 배고픈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다.

타밀 지역은 성도 외에 미망인까지 섬겼고, 싱할라 지역은 성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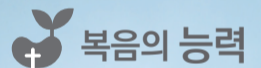
섬겼다. 싱할라 지역에서 물질로 섬기면 개종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이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부름하는 역할로 불러주셨다.

느헤미야 기도책, 싱할라어로도 번역돼...

또 감사한 것은, 기도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느헤미야 기도정보’ 타밀어 번역본 외에 싱할라어 번역본이 완성됐다는 사실이다. 이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은 이런 복음을 몰랐다면 깊이 있고 정확한 신학이 여기 들어있다고 감탄을 한다. 통행금지 중에서도 화상회의시스템 줌(ZOOM)을 통해 온라인 느헤미야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루비 사모님 교회는 밤 12시~새벽 3시까지 ‘아기 엄마들’로 이뤄진 기도의 용사 20명이 모여, 아기들을 재우고 기도한다고 한다.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송한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해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도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GPNEWS]

윤OO·임OO 선교사



하나님께 집중하라

날마다 ‘개인적인 장소’를 찾으라.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이 당신을 감쌀 때까지 그 은밀한 장소에 머물라. 거기서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써라. 매 순간 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러면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읽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중요한 것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말고 당신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실히 붙들라. 쓸데없이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당신의 관심을 몇 가지 일로 국한시키라. 당신의 영혼의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말라. 그리고 영적 집중력을 기르도록 훈련하라. [GPNEWS]

성령님
(A.W. 토저)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열방을 살릴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달려갑니다”

행복한 행진으로 순종하는 **안승용**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 복음기도신문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폐교 건물. 교실 한 칸의 절반 정도를 사무실로 개조한 공간에 취재진을 맞이 위해 소박하게 차려놓은 차 한 잔과 과일 몇 조각. 그런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순회선교단 대표 안승용 선교사의 삶과 사역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

- 먼저 순회선교단을 소개해주세요.

“선교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단체 일텐데요. 또 당연히 김용의 선교 사님이 대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 엉뚱한 사람이 대표라고 하니,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단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은 무슨 얘기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회선교단은 선교완성을 꿈꾸며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을 하는 단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어떤 선교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조금만 더 풀어 설명해주세요.

“저희 단체의 부르심이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에요. 선교완성을 위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취지로 1997년에 설립됐어요. 그러니 벌써 24년이나 됐네요. 청년의 나이죠. 저희 단체는 선교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국내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학교라는 훈련과정으로 복음을 나누고, 기도학교, 선교학교, 공동체훈련 등 다양한 신앙훈련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저희 단체를 개척한 초기 개척세대인 김용의 선교사님과 함께 선배들이 리더십을 후배들에게 넘기고, 다음세대가 선교단체 리더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부족한 제가 이 단체의 대표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완성을 꿈꾸는 선교단체

- 그렇군요. 그럼 단체나 사역 얘기는 조금 있다가 더 듣고 먼저 선교사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앙심은 없었지만 나름 진지한 꼬마였어요. 어릴 때부터 큰 고민이자 질문이 있었는

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나?’라는 질문이었어요. 저절로 궁금해진 것 같아요. 4~5살 때는 그냥 친구들과 놀았는데, 7~8살 정도 되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학교는 왜 가지?’라는 질문이 들었죠. 형은 유치원에 갔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굳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또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성적도 잘 나오고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것이 막 기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5~6학년 때 즈음, ‘이건 답은 못 찾을 것 같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신문기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한국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흥흥한 소식이 들려오던 때였거든요. 그런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사가 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과 함께. 제공: 안승용 선교사

- 상당히 조숙한 어린 친구였네요. 그 이후가 궁금하네요.

“신문기자를 목표로 살아가다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꿈이 사라졌어요.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입사원서 한 장 못 써 봤어요. 그 어디도 사람을 뽑지 않았죠. 인생이 박살 나는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경제 위기만 오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실패한 걸 모르고 자랐어요. 집안 형편도 아주 어렵진 않았고, 나름 인생에 고민은 있었지만 공부하고 싶으면 다 하게 해주셨고, 친구도 많았어요. 그전까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셨어요.”

IMF 이후, 시작도 못한 채 다가온 위기

-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죠?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한동안은 방황했어요.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주위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 적지 않았는데, 다들 패닉 상태였어요. 공황장애가 온 친구들도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워하면서 6개월 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일단 하는 게 없으니 시간을 벌어보려고 대학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난 왜 사는 거지?’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성경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자연스럽게 청년부 임원도

후원도 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단기로 가서 섬기고, 나중에는 규모가 커져서 작은 선교단체를 조직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됐죠.”

- 선교사의 길로 뛰어드신 거군요.

“이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선교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진리하고 저하고는 갈수록 정반대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거룩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고, 뭘지 모르겠고, 성경에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더 목말랐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탈북자 선교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 급기야 조직이 와해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큰 정신적 충격도 겪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어요. 그 무렵 고난주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내면 안에서 ‘도대체 십자가하고 너는 무슨 관계냐?’ 하는 도전이 왔어요. 답을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겠다고 헌신도 했는데,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답을 못하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 많은 분들이 사역하거나 삶에서 그런 위기를 겪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에 대해 듣는 바가 있었어요. 당시 어떤 새로운 사역에 뛰어들기 직전이었는데, 먼저 복음 앞에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 은혜를 누리고 가기로 결단했죠. 몇 해 전부터 김용의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는데,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복음 앞에 서면서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있었고 듣고 싶었던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됐어요. 창세기 12장 1~3절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졌고, 잃어버렸던 저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졌어요. 복음학교 내내 울면서 지냈어요.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동안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삶의 이유와 질문이 그때 한 방에 풀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아처럼 살아왔구나. 인생들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끝나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너무 감동이 됐고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셨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도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는 고아가 아니야. 하늘 아버지의 자녀구나”

- 어떤 의미였나요?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넌 하늘에 속한 자야.’ 땅에 속한 인생을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성공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의 성공의 가치를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죠.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이미 성공한 자가 된 거였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동안 성공해야 된다고 부추기는 사탄에게 속아서 살아온 게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 복음이 모든 인생의 답을 해결해 주셨군요. 사탄의 실체도 보고요.

“저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목마른 사람이 또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를 주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의무와 책임과 목마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라 생각해요. 이 복음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시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GN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더 큰 죄, 더 큰 은혜 (2)

알고 행하는 죄와 긍휼 없는 심판

알지 못하고 행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그것은 알고도 행한 죄이다. 하나님과 진리를 뵈히 알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일 때 더 큰 죄라고 하신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히 10:26)

‘거룩’이 전제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

주님은 더 큰 죄에 대하여 두려운 경고를 하신다. 긍휼 없는 심판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면 구약에서 아간의 죄를 지목하고 있다. 이 일로 무서운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첫

여리고 전쟁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치러진다. 아주 중요한 전쟁이며 칼과 창으로 이긴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긴 전쟁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치르실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거룩이었다. 그들은 거룩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기 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진멸하여 바쳐진 그 성의 운명과 같이 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다.

하나님의 거룩과 금덩이를 바꾼 아간의 범죄

그런데 너무 쉽게 성취한 전쟁의 승리가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마음 안에 틈을 만들었다. 그는 멸망하고 죽어 넘어진 시체 더미 사



일러스트=이예원

이에 있던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를 보게 된다. 그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새까맣게 잃어버렸다. 그는 알면서도 황금에 손을 대었다. 하나님의 거룩과 금덩이를 바꾼 것이다. 거짓말하고 숨기다가 결국 나중에 제비 뽑혀서 그의 모든 일족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되어 역사의 두려운 경고가 된 채 무서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했다.

마지막 자비까지 거절하고 주님을 판 가롯 유다

신약에서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너무도 분명하게 3년 반 동안 주님을 함께 따르던 가롯 유다가 그러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순간에도 주님이 떡을 떼어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듯이 그

에게 떡을 주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깨닫기를 바라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자비까지 거절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았다. 긍휼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죄는 다 같은 죄로 더 큰 죄가 있다. 그것은 알고도 행한 죄이다. 핑계할 수 없는 확증된 진리와 표적의 증거가 선포되면 위장이 불가능하다. 내면 중심에 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복음은 강력하다. 그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이것은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그 나머진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아주 두려운 일이다. (2018년 5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H.U.F.M
헤브론선교대학교

2021학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

www.hufm.or.kr

모집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선교적 삶에 부르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2021 하반기 모집학교
복음사관학교, 경건훈련학교, 성경언어학교, 영어기초학교.

지원방법
지원할 학교를 선택하셔서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해당 학교의 원서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 후 원서를 작성하여 우편 등기로 접수합니다. 2021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은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입학전형 일정
자세한 설명은 헤브론선교대학교 홈페이지(www.hufm.or.kr)와 유튜브 채널 '헤브론선교대학교'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문의 010-2772-4641, 010-2447-4641

헤브론선교대학교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선한사업 / 선한기업

엘타임

선한사업 디모데전서 6:17~19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기업 잠언 16: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 전문소방시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문의 : 033)761-0078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3면에 이어>

국보법 폐지되면 김일성 우상화 활동 펼쳐질 것... 김일성은 20세기 최고 죄목의 전쟁범죄자

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게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최근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이 시판되자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5월 이 책자의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이 책자 등 북한 출판물이 국내에 제한 없이 배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각종 설명회, 학습, 공연, 동상 설립까지 금지하지 못하는 해괴한 일까지 펼쳐질 것이다.

김일성은 지난 20세기 유엔이 공인한 전쟁범죄, 인류와 인간성 및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가장 최고 죄목의 범죄자다. 이처럼 엄연한 현실에 눈을 감고, 우리 사회가 국보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0세기 인류가 겪은 세계사적 대참화와 경험을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도 | 자유민주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사람 즉,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함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에 따라 마련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의 정신인 '국가수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따르고 이에 어긋나는 단체와 행위는 규제 대상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이다. 법 해석과 적용에서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도록 기도하자. [GPNEWS]



공동체에서 배우는 선교사의 부르심

지난달은 여러모로 주님께
서 많은 은혜를 부여주셨
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항상
모든 것에 있어 말씀으로
결론 내려주시고 그것을 결
론으로 붙잡게 하심이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은 한 선교단체에서 시작
된 공동체 삶! 하늘 가족 모
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에 참 좋다. 또
매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
리는 선교집회에 계속 참여
하면서 집회 때마다 말씀하
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
다. 또 이 집회는 참 다양한
배경의 지체들이 많이 와서
소그룹 시간에 참여하는 것
이 흥미롭기도 하다.

이번 달 소그룹 모임을 하
며 평범하게 보이는 자기계
발과 직장생활, 학교 및 교
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
야기를 들으며, 그러한 삶을
상상하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피곤했지만 한 선교사님
의 강의가 처음부터 끝까
지 내 마음을 건드렸다. “우
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



일러스트=고은선

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어 기도를 인도한 선교사
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지옥
앞에 구원 가게를 차려 지
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
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서는 그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 나의 존재의 목적과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 번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하
여, 또 주의 일을 위해 평생
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달 중순에 이
곳에서 인터넷으로 진행된

선교대회에 참여했다. 기도
회 시간에 중앙아시아 K국
과 러시아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다. 그 땅
을 위해 기도하는데 다시
한 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를 품게 되는 시간이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단다! 적은 무리이
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의 교회는 지금도 전진하
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주님께
서는 나의 초점이 정확히 어

디로 향해야 하는지 말씀하
여 주셨다. 죄인은 너무 당
연하게도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 나의 영광과 나의 부
와 나의 명예와 나의 상황
등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경외해야 할 하
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드
리고 있는지 묻는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울고 웃는 것
이 아니라 마땅히 영광 받으
셔야 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를 묻는다. 나
는 쇠하여도 주님이 흥하셨
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
는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묻는 시
간이었다. 매일의 순간에 그
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
을 알게 되었다.

나의 기준이, 초점이 무엇
을 향해 있어야 하는지 말
씀하여 주셨다. 나의 상황
에 나를 내어주는 것 아닌,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합
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한다.

[GPNEWS]

김지혜

복음의 소리 316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육아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요

Q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 엄청난 분노로 무섭게 매를
드는 내 자신이 언젠가는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뉴스 보도처럼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
고 두려워요.

A 전화를 들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상담자인 저 역시
힘든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향한
분노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답변이
정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돌과한 방법입니다.

- 1. 절대로 화내지 않는다.** 화를 내면 훈육이 아니라 '화내는 엄마'만 남을 뿐입니다.
- 2.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화나고 짜증 나게 하는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다면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신 아이에게 '매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동안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믿음으로 고백한다.** 상하고 화가 난 상황이지만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아이를 바라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OO야 사랑해. 너는 예수님 짜리야.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 4. 징계한다.**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못했다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GPNEWS]



北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적화전략 포기?... 고의적 오독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
(黨)대회에서 개정한 노동
당 규약에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는 북한의 적화전략이
사라진 것이라고 밝혀 물의
를 일으키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최근 보도했다.

이종석 씨는 일부 언론이
개정된 당 규약을 보도(6.1)
한 다음 날, 통일부 기자단
에게 새 규약이 어떤 의미
를 지녔는지에 대해 설명하
면서 "당의 당면목적을 기
술한 부분에서 '전국적 범
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이 삭제된 것
은 북한의 '대남 혁명'(적
화전략)이 사라진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북
한의 대남전략변화(남조선

적화전략 포기)에 대해 많
은 논쟁을 벌여왔지만, 이
번 당 규약 개정으로 논쟁
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당 규약에서 사실상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함에 따라 북
한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
은 맞지 않다. 김정은 시대
에 들어와 통일담론을 만들
고 있지 않다. 남조선 혁명
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창열 북한연구
회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내세우는 '평화통일' 또한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
하려는 기도를 은폐하기 위
한 기만"이라며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경우
는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흡수통일
방식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군사력을 제외하
고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남북한 국력이 현격
한 차이가 있는데다 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결코 통일
한국의 수반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통
일 방식은 무력에 의한 대남
점령뿐이라는 것이다.

정 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당
규약이 일관해서 유지하고
있는 체제 목표는 대내적으
로 김씨 일가가 북한 지역
에 확보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남면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공산사회 건



▲ 조선노동당 70주년 열병식. 출처: 유튜브 채널 Jacob Laukaitis 캡처

설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한민
국을 무력 점령하여 김씨 일
가의 권력 행사 영역을 확대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 당
규약도 당연히 이 같은 체
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이슈로 등장한 '민
족해방민주주의혁명' 삭제 등
당 규약 개정 과정에서 자구
의 일부 침식이 가지는 의미

는 지천(支川)에 불과하다.
이에 정 회장은 "이종석, 정
세현 씨가 통일정책을 총괄하
는 부서의 장관을 역임한 자
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패착
에 가까운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
했다. 그는 또 "김일성에게 면

죄부를 주는 내재적 접근론에
천착(이종석)했고, '볼턴은 한
반도 문제에서 매우 재수 없
는 사람, 인디언을 학살한 백
인 기병대장을 연상' 발언(정
세현)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개정 당 규약을 '고의적으로
오독(誤讀)'한 것"이라고 꼬집
었다. [GPNEWS]

北, 파괴적 사이버 활동 능력 보유... 전 세계 위협

영국의 한 연구소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낮다고 분석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전 세
계에 위협이며 북한은 파괴적
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은 금
융기관에 대한 심각한 사이
버 위협이자 사이버 간첩 위

협으로 파괴적인 사이버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보호자, 일반인들
이 함께 경계하고, 북한의 사
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전문가인 미 해병
대 대학의 브랜드 발레리노
(Brandon Valeriano)교수는
북한 사이버 역량 평가와 관

련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 없다는 방어적인 이점
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다른 국가들
이 피하는 외화 갈취에 집중
하는 등 더 대담해지고, 방법
역시 새로워지고 있으며 특
히,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고 평가했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김서연의 <잘린 조각들-검정(Cut Pieces-Black)>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김서연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40대 여성 작가이다. 유명 미술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한때 결혼과 육아로 붓을 전혀 들 수 없었다. 한동안 작업에서 손을 놓다 보니, 어느덧 빈 캔버스를 보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했다.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다는 편이 더 맞겠다. 그때 겨우 시작한 것이 캔버스를 뚫는 작업이었다. 작은 조각들이 먼저처럼 우수수 캔버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하찮은 조각들은 마치 자기 자신과 똑같아 보였다고 했다. 그래서 캔버스 위로 드러나는 웅장한 형태만큼이나 떨어진 조각들이 더없이 소중했다. 주변의 조언자들이 레이저 커팅으로 한 번에 캔버스를 뚫는 손쉬운 기술을 권했지

만, 작가는 아직도 손으로 하나하나 캔버스를 뚫는 작업을 이어간다. 형태를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은 구멍들을 뚫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뚫린 구멍 너머로 십자가가 드러난다고 했다.

도끼를 찾아 주신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좇아가기엔 내 그릇이 너무 작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 눈앞에 시련의 검은 풍랑이 일렁일 때, 풍랑보다 큰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며 애써 보지만, 믿음의 좌절만 확인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도끼를 찾아 주신 하나님'을 떠올

려 본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열왕기하 6장을 열어 보라. 마치 전래 동화처럼 엘리사를 통해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 주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적혀 있다. 엘리사와 제자들은 숙소를 짓기 위해 도끼를 빌려 왔으나, 공사 중에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만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도끼를 찾아 주신다. 선지자의 처소를 짓는 거룩한 일에 도끼 따위의 사소한 일로 난리냐고 다그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캔버스 아래로 떨어지는 작은 조각들을 다 끌어 내다 버리지 않으신다. 전면에 나타나는 크고 장엄한 형태만 옳다 옳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 작품설명: 김서연, <잘린 조각들-검정#3(Cut Pieces-Black#3)>, 2017, 캔버스에 핸드커팅, 166x130cm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캐나다 통신] 딸의 성전환 반대한 아빠 '구속중'



▲ 트랜스젠더를 선택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출처: time.com 캡처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인 타임(TIME)지 3월호 표지에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가 남자로 과격 변신한 모습으로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름도 '엘렌'에서 '엘리엇'으로 바꾸고 가슴 제거 수술을 하고 당당하게 나타난 모습에 '좋아요'를 누른 네티즌이 수백만 명에 달했다. 아담하고 귀여운 외모에 아역배우에서 오스카 후보에 이르기까지 일명 '국민 여동생'의 친숙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존재를 미리 정하시고 성별을 확정하셨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트랜스젠더리즘은 정신과적 상태에서 온 것이다. 실제로 아무리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 해도 성염색체는 바

뀌지 않으므로 남자는 여전히 남자이며 여자는 여전히 여자이다.

올해 미국의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책은 화장실 이데올로기(Bathroom Ideology)였다.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자 화장실로, 여성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프리 티켓(Free Ticket)인 것이다.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rans Day of Visibility)을 맞아 백악관에 트랜스젠더 깃발을 올리고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완전한 평등(Full Equality)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야심찬 움직임에 많은 '커밍아웃'이 잇따르고 있다. 예전에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은 주로 동성애자였는데 지금은 이름도 모호한 수많은 젠더 퀴어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 젠더 종류가 많다 보니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기도 애매해 '나는 그냥 나라는 트렌드가 일고 있다.

'성별 다양성'은 '평등'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전통적인 성과 가족의 해체가 당연시되는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유아원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입식 성교육,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INCLUSIVE(포함) 운동'이 나라 정책에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성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이런 사조에 따라 생물학적 성에 대한 논쟁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고 그나마 목소리를 내던 사

람들은 시대에 뒤진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구속하는 일들이 미국, 캐나다는 물론 지구촌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젠더 교육을 받고 교차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는 것을 장기간 반대해 온 한 아빠가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나는 완벽하게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아이는 저음의 목소리를 갖게 될 것이고, 얼굴의 털 때문에 영원히 면도를 해야 할 것이다. 내 아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나쁜만이 아니다. 가끔씩 학부모들에게 뛰어들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소리를 지르고 싶다."는 그 아빠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아이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교육(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을 통하여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되찾는 것은 아름답고도 정상적인 행위라는 정교한 속임수에 '트랜스젠더리즘'의 희생양이 되었다.

현재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음을 실감한다. '자기 사랑'에 빠진 이 세대에게 절대적 진리란 없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sex)조차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지 오래이고, 성소월주자(LGBTQ)들이 정상인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상담치료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금지시키는 '전환치료 금지' 법안이 미주 지역 곳곳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자기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이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처벌을 받고 자녀와 분리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목격하게 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그 나라를 덮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늘이 정한 영원한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는 나라는 결코 하늘의 좋은 미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람의 외형적인 변화와 성별 정체성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현실,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sex)의 유동성'과 '잘못 태어났다(in the wrong body)'. '는 주장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방향이요 정신적 학대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회복으로 이끄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하늘이 정한 영원한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 오늘도 젊은이들은 수많은 성별 옵션을 놓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여 일어나라! <지저스아미 7월호> [GPNEWS]

그레이스김 선교사 (밴쿠버 에스더기도운동)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구독신청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6. 17 ~ 7. 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호 권혜령 김신애 김애심 김유남 김정희 김혜신 노은옥 문용문 박경희 박신희 박영순 박현숙 신은혜 안민자 안선영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윤경석 은종숙 이삼연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조명숙 조재희 조형광 차상복 차익수 최점옥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시은교회 선한목자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오보평강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참종양터교회 처음사랑교회 주만교회 토론토한침례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월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